

명실상부 전통문화진흥기관 위상 확립

한국전통문화전당, 4대 전략목표 12개 전략과제 · 31개 실행과제 발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25일 전주 관내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시행에 기반 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전통문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보다 더 진취적인 전략목표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야경

이날 전당에 따르면 올해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 속 전통문화 가치 확산 △현대화를 통한 전통문화산업 역량 강화 △전통문화지역의 융합으로 신(新) 문화가치 창출 △소통 협력으로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2개 전략과제 및 31개 실행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지분야에서는 전통한지장판지 복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K-한지미를 조성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전주한지의 생산, 소비, 그리고 전통성과 미래를 담아내는 한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한지문화거점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간다는 것.

또한 전주천년한지관과 한지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전통한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주한지문화축제를 국제한지산업대전으로 확대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한식분야에서는 전주음식문화 아카데미 '맛손클럽'과 '인문학'과 연계하는 전주음식 강좌 등을 진행, 시민 참여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전주음식 한상차림 개발 및 상품화 사업

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음식이 어우러지고 상호작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세번째로 한복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한복문화창작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한복상점에도 참가해 한복업체 역량 강화는 물론,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네번째로 공예분야는 오는 10월 22~24일 전주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캐를 같이 해 재외동포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전주공예품전시관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무주 최북미술관 기획전 '판화 그리고 판화' 개최

무주군은 오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최북미술관에서 기획전 '판화 그리고 판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랜 역사를 지닌 '판화'의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김수진(다색목판화), 김영란(다색목판화), 박홍규(목판화), 송지은(지판화 콜라그래프, 실크스크린), 유대수(목판화), 정미경(동판화, 석판화) 등 전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6명이 참여해 '내게 강 같은 평화', '깊은 여름', '홍산대원일지', '말나지 않을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그것-고립무원', '비문' 등 3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7기 입주작가 31일까지 모집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024년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7기 입주작가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창작스튜디오 7기 입주작가 선정 인원은 7명으로, 입주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다. 접수는 25~31일까지 팔복예술공장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3차 심사 후 2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24세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가로, 대학 재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된 7명에게는 창작공간, 전시지원(입주보고전, 결과보고전), 역량강화 프로그램(기획세미나, 리서치투어, 비평가매칭, 오픈스튜디오), 국내 네트워크 교류(국내 레지던시 기관교류, 예술인 및 기획자 교류), 아카이빙 구축(출판물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전주 외 타지역 입주작가에게는 숙소도 제공한다.

무주최북미술관 양정은 학예사는 "판화는 나무와 금속, 돌 등의 면에 형상을 그려 판을 만들고 잉크나 물감 등을 칠한 후 종이나 천 등에 인쇄하는 것으로 시각적으로도 다채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연특색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기획전인 만큼 무주에 오시면 꼭 찾아주시라"



태권도진흥재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태권도 직무연수 '어서와 태권도는 처음이지'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어서와 태권도는 처음이지'

태권도진흥재단, 전국 교원 대상 태권도 직무연수 실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함께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태권도 직무연수 '어서와 태권도는 처음이지' (이하, 태권도 직무연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겨울 방학 기간 중 열리는 태권도 직무연수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4일부터 26일까지 각각 2차 3일 일정으로 태권도원에서 진행 중이다. 전북을 비롯해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경남 등 전국에서 태권도 직무연수 참여 신청을 하며 경쟁률이 3대 1에 달했다고 각 회차 30명씩 총 60명이 선정되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표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에 포함된 '학교 체육 활성화 방침'에 발맞춰 더 많은 교원들이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를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태권도 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태권도 직무연수 참여교원을 회차별 기준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태권도 직무연수에서는 태권도 이해를 위한 이론교육을 비롯해 품새, 겨루기, 자기방어 및 교보재를 활용한 실기교육과 학습지도안 발표 등 학교 현장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편성해 참여 교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장선생님으로는 최초로 태권도 직무연수에 참여한 이순규(전북 무주군 부당초등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 이때 함께 하기 위해 연수를 신청했고,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다. 우리 학교를 비롯해 동료 선생님들께 태권도 직무연수 참여를 적극 권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 활성화를 체계 공공기관으로 환영하고 국기 태권도를 통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태권도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비롯해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태권도원을 찾는 교원 및 학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태권도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2024학년도 상반기에도 특수분야 연수기관 신청을 통해 여름방학 기간 2회에 걸쳐 전국 교원 대상 태권도 직무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광연 춘향제전위원장 연임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남원시민을 위해 많은 성금 모금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우리시 중점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등 남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남원시민들은 이 위원장이 '춘향제'를 대

남원시 관광과 관계자는 제94회에 이어 오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춘향, 컬러에(Color愛) 반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될 제95회 춘향제전위원장(임기 2004~2005)으로 이광연 현 위원장이 추대되었다고 밝혔다.

이광연 위원장은 아영면 출신으로, 강서 호남향우회회장·재경 아영향우회회장·재경 남원향우

한민국 대표 전통축제로 더욱 위상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